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힘을 모아
대한민국
힘을 모아
대한민국

2020년 5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 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5월 21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2020년 철새 도래시기를 대비한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

- 해외 발생 급증에 따라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체계적으로 대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지난 동절기 이후 최근까지 유럽, 중국, 대만 등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급증*

* 2019.12월~2020.4월 간 유럽 302건(전년 동기 대비 23배 ↑), 중국·대만 등 주변국 115건(3배 ↑)

- 올겨울 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겨울철 대비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

- 겨울 전까지(~10월) 가금 농가 방역시설 일제점검* 및 집중관리**로 취약요소를 조기 보완하고 야생조류 예찰(Surveillance) 정보망 운영 등 위험요인 관리 체계를 사전 구축 추진

* (1단계) 7월말까지 모든 농가 점검, (2단계) 9월말까지 방역미흡 농가 재점검

** 과태료 부과, 시정명령, 보완계획서 수령, 문자 경고, 재점검 실시 등

- 또한, 철새도래지별 위험도 분석을 통해 겨울철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작년보다 확대*하고, 9월부터 앞당겨 시행

* (작년) 도래지별 1~2개 구간 통제 → (올해) 도래지별 최대 5개, 일부 하천변은 전체 통제

- 유튜브(YouTube)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방역 교육·홍보, 농가 자체 점검 정착, 긴급행동지침(SOP)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으로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.

○ 국제기구(세계동물보건기구, OIE)에 보고된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, 지난 동기 대비 유럽 내 발생이 23배, 중국·대만 등 주변국 발생이 3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 동절기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.

* 2019.12월~2020.4월 간 유럽 302건(전년 동기 대비 23배 ↑), 중국·대만 등 주변국 115건(3배 ↑)

* 전 세계 발생 현황(건) : ('17) 2,100→('18) 540→('19) 234→(20.4.30) 431

○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나, 해외 발생 급증 상황과 매년 겨울철 해외에서 도래하는 철새 등을 감안할 때, 올겨울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.

○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구축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《 2020년 겨울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주요 내용 》

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.

○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시설(전설, 울타리, 그물망 등)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동절기(10월~) 전에 취약요소를 보완한다.

- 점검은 단계적*으로 실시하며 방역 미흡농가는 집중 관리**하여 시설을 조기 보완하는 한편, 농가 점검결과를 계열화사업자

방역평가에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**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.**

* (1단계) 7월말까지 모든 농가 점검, (2단계) 9월말까지 방역미흡 농가 재점검

** 과태료 부과, 시정명령, 보완계획서 수령, 문자 경고, 재점검 실시 등

-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경로(철새→축산차량→농가)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**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**을 작년*보다 **확대**하고 **시행도 앞당기며**(작년 11월→올해 9월), 농가 유입 최소화를 위한 **농가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**한다.

* (작년) 도래지별 1~2개 구간 통제 → (올해) 도래지별 최대 5개, 일부 하천변은 전체 통제

-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인 **야생조류 예찰**(Surveillance)을 **9월부터 강화**하고 **해외 조사**(몽골·러시아), **예찰요원 교육**, **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새 정보 공유망**(사회관계망서비스, SNS)을 운영한다.

② 대외 소통·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·홍보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의 방역 의식과 역량을 높인다.

- 지자체, 민간 전문가, 생산자단체 등과 **권역/그룹별 협의회**(영상회의 등)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**현장 중심의 방역**을 위해 노력한다.
- 조류인플루엔자 **방역 교육·홍보**를 위한 **유튜브(YouTube) 채널**을 개설·운영하고 방역 관계자 대상 **온라인 교육**을 실시하며, **농가 자체 점검(Self-Check) 체계 정착**을 위한 지도·홍보를 강화한다.
-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**신속한 초기 대응**과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, 지자체, 민간 등이 참여하는 **가상방역훈련(CPX)**을 실시한다.

③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.

- 겨울철(특별방역대책기간)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에 축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경우 사람과 차량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* 개정을 추진한다.

* 가축전염병 예방법령,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SOP) 등

- 또한,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 사육제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.

- 메추리와 관상용 조류 등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기타 가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작년 겨울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·H7형)이 검출된 지역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등 상시 예찰·검사 체계를 정비·운영한다.

- 아울러, 농가 방역 수준별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.

-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한 만큼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방역시설의 사전 보완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.

- 특히, 농가는 자체적으로 출입문·방역실·울타리·전실, 차량·사람 소독시설,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등 주요 방역시설 점검·보완과 축사노후화 방지 등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.

- 축사별 전용장화 착용·발판소독조 운영, 축사내외부 청소·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.